

친애하는 해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현대중공업 임직원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양해군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해군의 최대, 최  
신에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의 진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문무대왕함'의 저 위용은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기술과 자주국방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날로 성장하는 '필승 해군'과 우리 조선산  
업의 뛰어난 역량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합니다.

그동안 밤낮없이 애써주신 현대중공업의 기술진과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  
의 관계관 여러분,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입니다. 또한, 수출과 수입이 국가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전형  
적인 무역국가입니다. 그 물동량의 99%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변  
의 해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나  
가는 데 바다는 중요한 활동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다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번영의  
활로입니다. 따라서 해군의 사명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제2의 국토인 영해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  
의 바닷길을 수호할 책무가 해군장병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문무대왕함'의 탄생으로 우리 해군은 활동영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遠海에서의 작  
전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입체적인 대함, 대잠, 대공 작전능력도 한층 강화됩니다. 최첨단 무기체  
계와 스텔스 기능, 그리고 최신의 자동화된 지휘통제 시스템도 '문무대왕함'의 자랑입니다.

해군장병 여러분은 더욱 막강해진 전력을 바탕으로 영해수호의 신성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주  
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조선산업 종사자 여러분,

이 자리는 또한, 우리 조선산업이 일궈낸 쾌거를 다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1위의 명성에 빛나는 '조선 한국'의 현장에 와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외환위기 때에도 국가경제의 근간을 든든히 지탱해 주었습니다.

또, 조선산업은 해군력의 강화에도 크게 공헌해왔습니다. 초계함과 호위함, 그리고 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데 이어서, 이미 90년대 중반에 3천톤급 구축함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4천톤급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머지 않아 '이지스'(Aegis) 체계까지 갖춘 7천톤급의 구축함 시대도 실현해 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선산업의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 자동차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중추산업으로서 세계를 향해 무한히 뻗어나갈 것입니다. 저와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해군장병 여러분,

바다를 주도적으로 활용했던 민족은 언제나 인류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찍이 동아시아의 바다를 제패했던 장보고 대사의 자랑스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야 합니다. 5대양으로 항진해 나아가는 '문무대왕함'에는 대양해군의 웅대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하고 죽어서도 나라를 지켜내겠다던 문무대왕의 기개와 호국정신이 서려 있습니다.

조국의 바다를 빈틈없이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병 여러분 모두, 신임 문정일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무궁한 발전과 '문무대왕함'의 武運長久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